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 그 역할과 역사적 의미\*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properk@hanmail.net

**윤상길**

신흥대학교 언론방송창작과 조교수 cyrus92@naver.com

이 연구는 2013년 3월 1일로 설립 50주년이 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한국 언론정보학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언론정보연구소의 설립과정과 연구소가 전개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았다. 언론정보연구소는 1963년 3월 1일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신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설립 직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언론인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내용 분석과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1968년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석사 학위 과정으로 발전시킨 신문대학원 설립 이후 신문연구소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 1975년 신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회과학대학 산하에 신문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한 이후 언론정보연구소는 사회과학적 연구 학술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 3월 1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간행위원회(2013).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1963~201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는 연구 활동,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 교류 활동 및 교육 기능 등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한국 언론정보학 연구를 선도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KEYWORDS**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 언론정보학 연구 • 기자 재교육 • 한국언론학사 • 『언론정보연구』

## 1. 서론

19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언론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 연구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언론학 관련 정규 학과가 서울의 두 대학에 개설되었다. 1959년에는 언론학 연구자들이 연구 단체로 한국신문학회를 창립하고, 1960년에는 한국신문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로 『신문학보』가 창간됐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에 언론학 관련 학과들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대학에 관련 학과들이 설립되고 언론학 연구자들이 단체 활동을 시작하면서, 1960년대는 언론학의 연구와 교육 여건이 형성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5·16 이후 박정희 군사 정부의 언론 정책으로 추진된 주요 시책 가운데 하나로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가 설치됐다. 서울대학교의 학부 과정에 관련 학과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언론인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언론학 관련 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소를 국립대학교 안에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인식하에 1962년 12월 28일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하여 1963년 3월 1일 법정 연구소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는 한국의 대학에 설치된 언

문학 관련 연구소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구소다. 신문연구소는 1994년 3월 1일 연구 대상과 연구 영역을 확대하여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연구소 명칭을 언론정보연구소(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로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듯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명목상의 대학 부설 연구소가 아니라 실제 적극적으로 연구, 학술활동을 수행해 온 연구소로서, 1960년대 한국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와 교육활동 50년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한국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선도적으로 담당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학 분야 연구소의 역사를 정리한 선행 연구로는 『한국 신문학 50년사』(1977)에서 정수경이 정리한 “신문학 연구기관과 그 업적”이 최하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한국신문연구소,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한양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조사연구소,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발전연구소에 대해 연혁, 기구, 주요 활동 및 업적 등을 정리했다. 이 글은 언론학 관련 연구소의 설립과정과 당시까지의 주요 활동을 정리해 주고 있어 각 연구소의 초기 활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 외에 『한국신문연감』과 『한국신문방송연감』의 교육·연구 항목에서 각 대학의 연구소 현황을 정리한 경우가 있지만, 매우 소략한 정도다. 언론정보학 관련 연구기관과 단체의 역사가 단행본으로 간행된 사례는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2009)와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2012)가 있다. 그러나 대학 연구소의 역사가 정리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언론정보학이 학문적으로 제도화된 역사가 길지 않은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정보학 분야 가운데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 대학 부설 연구소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언론정보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에 대해 이 글은 연구소가 전개한 주요 활동을 살펴본 후, 그러한 활동들이 한국 언론정보학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소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 설립되었으며, 어떤 조직과 제도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연구소의 주요 활동을 조사연구 활동, 기자 재교육, 국제교류 활동으로 나누어 시기 구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

## 2. 시기구분

이 글은 언론정보연구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시기 구분해 살펴보려고 한다. 제1기는 1963년 신문연구소 설립에서 1968년 신문대학원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한국에서 신문연구소가 처음 설립되면서 언론으로부터 매우 큰 관심을 받으며 언론인 재교육을 담당하며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던 기간이다. 제2기는 1968년 3월부터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신문대학원 설립으로 교육 기능이 분리되어 신문대학원 부설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정립하던 기간이다. 이 두 시기는 동승동에 캠퍼스가 있었던 시기다.

제3기는 1975년 3월부터 1985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에 신문학과가 설치된 기간이다. 이 시기는 기자 재교육 기능을 일부 지속하면서,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등으로 새로운 연구 기능을 모색하던 기간이다. 제4기는 1985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국내 학술 세미나를 본격 개최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3기와 4기는 대체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이후의 7동 시기다.

제5기는 1995년부터 2005년의 기간을 다루었다.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적극 추진되고, 연구의 외연을 확장했으며, LG상남언론재단과 공동으로 해외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기 시작한 기간이다. 제6기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언론정보연구』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만들고, 학술 포럼의 정례화, 국제 교류의 확대 추진 등으로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가운데 최우수 연구소의 하나로 도약한 시기다. 제5기와 6기는 사회과학대학 건물이 신축되어 연구소도 사회과학대학 건물인 16동 4층으로 이전한 이후의 시기다. <표 1>은 이러한 시기 구분과 각 시기의 성격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먼저 연구소의 설립과 조직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조사연구 활동, 기자 재교육 및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표 1.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시기 구분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설립과 활동 (동송동캠퍼스 시기)	제1기 (1963~1968)	신문연구소의 설립과 초기 활동
	제2기 (1968~1975)	신문대학원 부설 연구소로 연구 기능 확대
전문 연구소의 출발 (관악캠퍼스 7동 시기)	제3기 (1975~1985)	연구 기능의 분화와 모색
	제4기 (1985~1995)	연구소의 역할 재정립기
국제 교류의 모색과 최우수 연구소로의 도약 (관악캠퍼스 16동 시기)	제5기 (1995~2005)	연구소 기능의 다양화와 국제 교류의 모색
	제6기 (2005~현재)	최우수 연구소로의 도약

### 3. 언론정보연구소의 설립과 조직의 변화

#### 1) 신문연구소의 설립과 초기 조직, 1963~1968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언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언론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4월 혁명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폭로와 시위보도로 시위가 확산되고 연결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던 언론이 4·19 이후 제2공화국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사이비 언론과 사이비 신문기자들이 크게 늘어나 신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이런 언론계 현실을 바로 잡으면서, 정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언론을 적극 동원하고자 했다. 언론인의 품위와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아래 박정희 정부의 언론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안에 신문연구 기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1962년 6월 연구소 설립 초안이 학장회의에서 검토되면서 본격화했다.<sup>1</sup> 당시 『대학신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문연구소는 신문을 비롯한 제〈마스·컴〉 분야의 연구와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부, 교육부, 총무부들의 부서를 두도록 뜻하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 및 사계인사들로 구성된 평의원회(評議員會)를 두어 의결사항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신문연구소〉 설치는 국가적 요청이다”라는 제목의 사설로 신문연구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2</sup> 이 사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서울대학교 내에는 정부 방침에 호응하여 신문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1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학장회의 규정 부의”. 『동아일보』. 1962. 6. 16. 3.

2 “서울대에 8개 연구소”, 『대학신문』 1962. 6. 18. 1; “〈신문연구소〉 설치는 국가적 요청이다”. 『대학신문』 1962. 6. 18. 사설.

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는 다음 날인 1962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대학교 및 언론계 중진인사들이 신문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7월 2일 신문연구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sup>3</sup>

한편 서울대학교 내의 신문연구소 설립 움직임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에서도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2년 6월 28일 군사정부는 최고회의 언론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신문연구소 설치 근거가 포함된 것이다. 이 언론 정책은 5개 항목의 기본 방침과 20개 항목의 세부 방침으로 구성되었다.<sup>4</sup> 5개의 기본방침은 ① 언론 자유와 책임, ② 언론인의 품위와 자질, ③ 언론 기업의 건전성, ④ 신문 체제의 혁신, ⑤ 언론 정화 등이었다. 세부 방침은 이와 같은 언론 기본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⑭ 항목이 “품위, 자질의 향상과 신문의 연구를 위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함에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였다.

군사정부는 이러한 최고회의 언론 정책 기본 방침과 세부 방침 시행을 위해 1962년 7월 31일 언론정책 시행기준을 발표했다. 이 시행기준은 ① 언론인 직능별 단체 구성, ② 단간제 및 증면, ③ 일간지의 일요지(日曜紙) 발행 불허, ④ 통신사 정비, ⑤ 일간 신문의 시설 기준, ⑥ 기자 보수 기준, ⑦ 지사·지국의 취재 제한, ⑧ 신문용지 대책, ⑨ 자금용자, ⑩ 서울대학교에 설치될 신문연구소를 적극 지원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sup>5</sup>

이처럼 언론정책 시행기준에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설치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8월 13일 법대 도서관 2층에 신문연구소 설치를 준비하는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다.<sup>6</sup> 임시사무소는 연구소 설치를 위해 관련

3 “연구소특집”. 『대학신문』. 1963. 6. 20. 4.

4 “언론정책 전문”. 『동아일보』. 1962. 6. 29. 석간 1.

5 “언론정책 시행기준 전문”. 『동아일보』 1962. 8. 1. 조건 1.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소 설치를 준비했다. 당시 연구부장에 이만갑 사회학과 교수, 교육훈련부장에 김규환 당시 동양통신 부국장, 총무부장에 서원룡이 임명되었다. 또한 1962년 12월 28일 각의에서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의 건을 의결하여 각령 1133호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설치가 법제화되었다. 이 각령은 1962년 12월 31일 관보 제3334호에 발표되었다.<sup>7</sup>

그런데 언론정보연구소가 연구소 설립에서 1999년까지의 연혁을 자체 정리한 1999년 자료에는 연구소가 1963년 3월 25일 창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sup> 서울대학교 자체적으로 행정적, 제도적 정비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소 설립일을 3월 1일로 보고자 한다. 신문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매스·컴 각 분야에 관한 연구와 이에 종사하려는 자의 교육 및 양성”이었다.<sup>9</sup>

그러나 설립 첫 해인 1963년은 국고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다.<sup>10</sup> 예산 편성 기일이 지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사단법인 신문회관으로부터 3월 13일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sup>11</sup> 사무용 집기와

---

6 『대학신문』. 1963. 3. 21. 1.

7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제3334호. 32~33쪽.

8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사 간행위원회(2013). 앞의 책. 40~41쪽에서 재인용.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9). 언론정보연구소 연혁·현황·실적: 1963~1999. 『언론정보연구』 36권. 237쪽. 한편 『대학신문』 1963년 3월 21일 자 1면 기사에는 “오랫동안 준비를 서둘러오던 서울대학교 부속 신문연구소는 오는 4월 중에 문을 열게 된다”고 보도했고, 『대학신문』 1963년 4월 29일 자 기사에는 연구소 개소 축하 파티가 1963년 4월 30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9 “연구소특집”. 『대학신문』. 1963. 6. 20. 4.

10 “정부보조금 40만원 신문연구소에 전달”. 『동아일보』. 1963. 3. 13. 7.

11 『대학신문』. 1963. 3. 12. 1.



비품을 구입하고, 교육훈련부의 강사료와 임시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다. 또한 기부금 일부는 1964년 학술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 창간 비용으로 사용했다. 신문연구소가 서울대학교의 정규 법정 연구소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설립 이듬해인 1964년부터였다.<sup>12</sup>

그런데 신문연구소가 설립된 1963년 당시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는 매우 적었다. 서울대학교가 1946년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1950년대 말까지 1946년에 설립된 생약연구소 외에는 연구소가 전혀 없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궁핍했던 국가재정으로 인해 국립대학에 연구소를 설립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본격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였다. 1960년대에 20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sup>13</sup> 인문사회 분야에서 처음 설치된 연구소는 1961년 설치된 한국경제연구소였다. 이어 1962년 학생지도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소는 설립 당시 상과대학 부설 연구소여서 대학교 부속 법정연구소는 학생지도연구소가 유일했다. 그런 상황에서 1963년 3월 1일 어학연구소와 신문연구소가 법정연구소로 설립된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신문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소 가운데 어학연구소와 함께 두 번째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직속 법정 연구소였다. 또한 학부에 학과가 설치되기 이전에 관련 연구소가 먼저 설립된 매우 예외적인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설립 당시 신문연구소의 기구와 조직은 연구소장 밑에 학술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부, 언론인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훈련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었고,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

---

12 정수경(1977). 언론학 연구기관과 그 업적.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 희관임근수 박사 화갑기념논총. 정음사. 167쪽.

13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1946-1986 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28~244쪽.

1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관보(<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제 3334호. 32~33쪽.

한 사항을 조정했다. 초대 소장에 육지수(陸芝修) 지리학과 교수, 연구 부장에 김규환 동양통신 편집부국장, 교육훈련부장에 이만갑 사회학과 교수가 취임했고, 평의원에 육지수, 고재욱, 김규환, 이만갑, 유기천, 정병조 교수가 참여했다.<sup>15</sup> 연구부는 신문연구소의 모든 연구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담당했고, 교육훈련부는 1년 기간의 연구생 모집 및 교육 업무를 담당했다. 1964년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서명원, 유기천, 박종홍, 권영대, 최재희, 고재욱, 김규환, 이만갑으로 구성했고, 연구원은 김규환, 이만갑, 최준, 박권상, 홍승면 등 5인을 위촉했다.<sup>16</sup> 사무국은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파견한 사무원 1명과 임시 채용한 직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했다.

지리학 전공으로 신문연구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초대 소장 육지수 교수가 1967년 6월 별세하면서, 정부는 1967년 10월 4일 동양통신 편집국장 김규환 박사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명하고, 신문연구소 2대 소장에 보임 발령했다.<sup>17</sup> 제2대 신문연구소장에 취임한 김규환 교수는 신문연구소의 역할을 “매스컴 과학의 경험적 기초적 데이터를 세계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매스컴 과학 연구에 종사할 학자들의 양성 확보”로 인식하고, 1968년 설립될 예정인 신문대학원과 신문연구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문대학원은 교육에, 신문연구소는 연구와 데이터 수집 그리고 교수진의 편성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여 이 두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했다.<sup>18</sup>

1967년 6월 신문연구소 전임교수로 이상희, 오갑환(사회학 전공) 교수가 취임했다. 1967년 12월 현재 연구소는 김규환 연구소장 이외에 전임 강사 2명, 시간 강사 9명, 유급 임시 연구원 4명, 조교 2명이 활동했

15 『대학신문』, 1963. 3. 21. 1.

16 『경향신문』, 1964. 5. 7.

17 “김규환 씨를 임명”. 『조선일보』, 1967. 10. 5. 1.

18 “대담 신임 신문연구소장 김규환 교수”. 『대학신문』, 1967. 10. 30. 3.

다.<sup>19</sup> 1968년에 신문대학원이 설립되면서 김규환 교수가 신문대학원장과 신문연구소장을 겸임했고, 연구원은 신문대학원 임근수, 박유봉, 이상희, 오갑환 등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최준, 홍승면, 박권상, 한기욱 등이 참여했다.<sup>20</sup>

## 2) 신문대학원 부설 연구소로 연구 기능 확대, 1968~1975

1968년 서울대학교에 신문대학원을 설립할 무렵 한국 사회의 언론학 교육과 연구는 제도화 단계를 거쳐 연구도 차츰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정부의 문교부와 공보부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를 신문대학원으로 승격시킬 방침으로 서울대학교 설치법과 대학정원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sup>21</sup> 신문연구소 연구생들이 정규 석사과정으로의 승격을 열망한 것처럼, 연구소가 본격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설치한 'School of Journalism'의 체제와 기능을 갖춘 신문대학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sup>22</sup> 신문대학원 설립에 따라 신문연구소는 총장 직할에서 신문대학원 부설 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신문대학원을 설립하면서 신문연구소의 조직도 일부 변경했다. 신문연구소가 설립 당시부터 담당했던 교육 기능은 신문대학원이 맡고, 신문연구소는 연구 활동에 치중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의 조직은 기존 조직에서 교육훈련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실험조사부를 설치했다. 연구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문헌 연구 및 정기간행물

---

19 『신문평론』 1967년 12월 호, 148쪽.

20 “附設 研究所를 찾아서(下)－新聞研究所”, 『대학신문』, 1968. 6. 7. 6.

21 “서울대 신문연구소 대학원 승격 방침”, 『조선일보』, 1967. 10. 25. 1.

22 김규환(1977). 서문. 김규환 편.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민중서관. 3쪽.

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실험조사부는 사회심리학 및 심리학의 응용 접근 방법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각종 실증적 자료 수집, 정리 및 실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서무실은 행정 실로 이름을 변경했다.

1968년의 연구소 인력은 소장 김규환, 연구원으로 신문대학원 전임 교수로 부임한 박유봉, 이상희, 김원수, 조명한 교수로 구성되었다. 1970년 연구원은 유재천, 정수경 이름이 보이고, 김석훈은 연구소 조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1971년 연구원으로 박옥춘, 조대회, 곽소진, 김재홍이 있었다.<sup>24</sup>

신설된 신문대학원 원장은 김규환 신문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전임교수였던 이상희 교수와 미국에서 귀국한 오갑환 박사를 전임으로 초빙했다. 또한 중앙대학교의 임근수(언론사 전공) 교수, 한양대학교의 박유봉(독일 퍼블리시스트 전공) 교수를 영입했다. 그 후 인접 학문 분야인 사회학에서 김일철 교수, 정치학 분야에서 최명 교수, 심리학에서 조명한 교수가 전임교수로 임명되고, 1973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차배근 교수를 포함 9명의 교수진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교수들이 신문대학원 교수진에 참여하면서 신문연구소는 더욱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을 연구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sup>25</sup>

### 3) 연구 기능의 분화와 모색, 1975~1985

1975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라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 폐지되고 사회과학대학에 학사 과정과 석·박사 학위 대학원 과정을 두는 신문학과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연구소의 소속과 역할

---

23 『신문학보』 4호(1970). 한국신문학회 회원명단. 150~151쪽.

24 『신문연구소학보』(1971) 제8호 참조.

25 강현두(1999). 이강수 교수의 학문세계. 노산이강수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커뮤니케이션과 현대문화』. 나남출판. 43쪽.

표 2. 신문연구소의 소속 변동 사항

1963. 3	1968. 3	1975. 3	1982. 6 이후
총장 직속	신문대학원 부설	사회과학대학 부설	대학교 직할

이 재조정되었다. 신문연구소는 기존의 신문대학원 소속으로부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설 신문연구소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따른 연구소의 사회과학대학 부설로의 소속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다시 초기의 법정 연구소로의 지위 격상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학대학 부설의 법정 연구소로의 소속 변화는 연구소 활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사회과학대학 부설 연구소로 소속이 변경된 신문연구소는 대학 직할 연구소로의 승격을 적극 추진했다. 대학교 직할 연구소로 승격되면 기본적인 재정이 지원되고, 필요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연구 환경 개선과 기능 활성화에 매우 유리했기 때문이었다.<sup>26</sup> 이런 노력으로 신문연구소는 1982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10835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학교 본부 직할 연구소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7</sup> 이와 같이 본부 직할 연구 기관으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 초 연구소가 수행했던 국민생활시간조사와 같은 대규모 사회조사 연구 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문연구소의 소속 변동사항은 <표 2>와 같다.

신문연구소의 소속 변화와 함께 연구소의 기능도 재조정되었다. 연구소 본연의 연구 기능 이외에 과거 신문대학원이 담당했던 단기 세미나 개최를 통한 언론인 재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26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575~576쪽.

27 관보 제9161호. 1982. 6. 11. 대통령령 제10835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

단기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신문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담당했던 언론인 재교육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였다.<sup>28</sup>

#### 4) 연구소의 역할 재정립기, 1985~1995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는 미디어 보급과 발달 단계에서 볼 때 전 문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다.<sup>29</sup> 또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우리가 먼저’라는 기치 아래 뉴미디어 도입과 정보화 사회 진입을 적극 모색하던 기간이었다. 이에 따라 특히 방송과 뉴미디어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늘면서, 이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 시기 신문연구소는 본부 직할 연구소로 승격된 이후 조직을 개편했다. 인접 학문 분야 교수들을 연구원으로 다수 위촉하고, 종래의 실험조사부는 자료도서부로 개편하여 각종 학술 자료의 수집과 보급을 담당한 것이다.<sup>30</sup> 특히 자료도서부에서는 198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전국 각 대학 신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집』을 발간했는데, 이 학위논문 요약집은 학술정보 검색이 어려웠던 1980~1990년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학교 직할 연구소로 승격되면서 연구 인력이 확충되어, 1984년 신문연구소의 인력은 연구원 11명, 특별 연구원 7명, 조교 1명, TA 1명, 행정 직원 및 기술 인력 2명이었다.<sup>31</sup> 그러나 직할 연구소로 승격되었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기본 운영비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연구비 지원은

---

28 “한국 신문들은 경영 경륜 없어-서울대 신문연구소 소장으로 옮긴 김규환 박사”. 『동아일보』, 1974. 2. 6. 5.

29 김영희(2009).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8~9쪽.

30 서울대학교 연구처(1996). 『서울대학교 학문연구50년(Ⅰ)-총괄·인문·사회과학』. 서울: 서울대학교, 351쪽.

31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앞의 책, 581쪽.

거의 없어 대부분의 연구비는 산학협력에 의한 용역 연구로 충당했다. 다행이 연구소가 대규모 사회조사 연구 과제를 자주 수행하면서 1990년대를 전후로 연구소 자체 연구기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추광영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한 1989년 이후 1,000만 원 전후 수준이던 자체 기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충하여 국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부 직할 연구소로 승격된 이후 신문연구소는 대규모 사회조사 연구 과제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사회조사 연구 활동이 연구소의 중심 활동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이전 시기에 거의 없던 국내 학술 세미나와 소규모의 학술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해, 이를 국내 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와 학과 대학원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연구소의 학술 활동은 좀 더 활발해졌다.

##### 5) 언론정보연구소 기능의 다양화와 국제 교류의 모색, 1995~2005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정보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다매체다채널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폭넓게 형성되어 갔다. 신문연구소는 이와 같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 대상 및 연구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 아래 연구소 명칭을 1994년 3월 1일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로 변경했다.<sup>32</sup>

언론정보연구소로 이름을 변경한 이듬해인 1995년 3월 1일 관악캠퍼스 16동으로 사회과학대학이 이전하면서 언론정보연구소도 함께 공간을 이전했다. 새롭게 이전한 공간은 7동의 공간보다 넓은 공간인 132.12m<sup>2</sup>를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다.

---

32 관보 1994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14180호 서울대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

## 6) 최우수 연구소로의 도약, 2005~현재

2000년대 중반이후 언론정보연구소는 체제를 보강하여 연구 활동을 정례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노력했다. 먼저 연구소 체제를 연구센터체제로 정비하여 2005년 8월 정보문화연구센터를 신설하고, 2008년 8월 커뮤니케이션역사연구센터를 설치했다. 2013년 3월 현재 연구소는 연구소장 아래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 학술정보센터, 정보문화연구센터, 커뮤니케이션역사연구센터의 네 부서와, 이를 지원하는 행정실,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2013년 3월 현재 연구소 소속 인력은 언론정보학과 재직 교수 12인의 겸무 연구원, 책임 연구원 1인, 객원 연구원 8인, 조교 1인, 행정실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초 언론정보연구소의 전용 공간은 50m<sup>2</sup>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용 공간이 182.12m<sup>2</sup>로 확대되었다. 전용 공간이 늘면서 연구소는 소속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공간을 확충하고, 자료실을 정비하여 연구소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독립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주목되는 활동 가운데 하나는 2005년 정보문화연구센터를 설치하여 학문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신설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디지털정보융합학과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정보문화연구센터는 설치 직후 정부의 '문화콘텐츠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창의적 기획자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여 2억 4,0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정보문화연구센터는 강남준 교수와 이중식 교수를 주축으로 경영대학과 함께 문화 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Global Leader Academy for Cultural Industry)을 추진했다. 이 과정은 세계 시장을 향한 전략적 사고와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겸비한 핵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2009년까지 진행했다.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정보문화연구센터는 2007년부터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던 중, 2007년 개원한 차세대융합기술원 안에 설립된



범학문통합연구소(제9연구소)의 소장직을 당시 정보문화연구센터장이었던 강남준 교수가 맡게 되었다. 이어 2008년 2학기에 정식 출범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디지털정보융합학과가 설립되어 강남준 교수가 학과장으로, 언론정보연구소 겸임 연구원이었던 이중식 교수가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이와 같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내 범학문통합연구소와 디지털정보융합학과의 설립은 언론정보연구소 내 정보문화연구센터의 독립법인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연구소의 성과로서 주목되는 다른 하나는 서울대 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소로 도약했다는 사실이다. 언론정보연구소는 1990년대 말까지 서울대학교 자체 정기 연구소 평가에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97년 연구소 평가에서 C등급으로 '지원되면 좋은 연구소'로 평가받았고, 1999년 연구소 평가에서는 전체 인문사회계 법정 연구소 10개 중 8위로 평가되었다. 2000년대 들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이 회복되면서 연구소 평가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낮은 순위였다. 2001년 7월 연구소 정례 평가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88.06점(전체 평균 85.93점)을 얻어 전체 29개(인문사회계) 연구소 중 16위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학술 포럼을 정례화 시키고, 연구소 학술지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여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내실을 도모했다. 또한 정보문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소 활동의 외연을 확장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아 2007년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소 평가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전체 연구소 가운데 종합순위 9위의 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이어 2009년 연구소 평가에서 종합순위 5위의 최우수 연구소(총점 87.5, 평점 A1)로 선정되었고, 2012년 연구소 평가에서도 종합순위 6위의 최우수 연구소(총점 86.5, 평점 A1)로 연속 선정되었다. 특히 연구 실적, 연구소 운영, 연구비 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성과를 인정받았다. 서울대학교 인문사회 분야 전체 연구소 가운데는 언론정보연구소보다 규모가 큰 연구소들이 적지 않고, 연구소 평가가 정례화하면서 각 연구소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연속해서 언론정보연구소가 최우수 연구소로 평가받았다는 것은 연구소가 2000년대 중반부터 체제를 보강하는 한편으로 연구 학술활동을 다각도로 개선하고, 확대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조사 연구 활동 50년

##### 1) 연구소 학술지의 창간과 초창기 신문연구소의 조사 연구 활동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설립 이듬해인 1964년 2월 연구소 학술지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를 창간했다. 초창기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는 담당교수와 연구생들의 연구 작업, 특히 연구소의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가 창간되기 이전의 한국의 언론학 연구들은 매체 가운데 신문이 주로 연구 대상이었고, 연구 방법은 거의 대부분이 문헌 연구였다. 조사 연구나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실정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가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 조사 방법이나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현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는 1968년 『신문연구소학보』로 개칭했다.<sup>33</sup>

『신문연구소학보』는 연구 대상 매체를 신문 이외에 출판, 방송, 영화 등으로 확대했고, 연구 대상은 각 매체의 전달 주체, 전달 매체, 전달 객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동태적 연구를 시도해, 한국 언론학 연구에 새로운 학문 풍토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판 『한국신문연

---

33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회(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597쪽.

감』의 다음과 같은 평가처럼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는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학 연구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과학적, 실증적 연구는 1963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 연구소는 대학원 과정의 연구생 과정을 설치하여 매스컴이론 및 연구방법을 강의하여 매스컴이라는 새로운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본격적인 실증적 연구를 행하여 신문연구소 학보를 통해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sup>34</sup>

『신문연구소학보』를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다른 간행물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57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일부 언론인들이 주도하여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 모임인 관훈클럽을 결성하고, 1959년 회원 언론인들의 연구 성과와 수필 등을 수록한 계간지 『신문연구』를 창간했다. 『신문연구』는 구미의 새로운 언론 개념들을 소개하고, 언론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연구 성과들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신문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는 아니었다. 한국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언론 현상을 주제로 한 연구 논문만을 수록하는 전문 학술지는 1959년 언론학자들이 연구모임인 한국신문학회를 설립하고, 1960년 창간한 『신문학보』가 유일했다. 하지만 『신문학보』는 창간호 발행 이후 오랜 기간 발행이 중단된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1968년 학회가 다시 정비되면서, 1969년에 제2호를 발행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설립 움직임이 있던 무렵 언론계에서도 한국신문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했다.<sup>35</sup> 그리하여 1964년 4월 1일 신

34 한국신문연구소(1977). 『77 한국신문연감』.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598쪽.

35 한국신문연구소 발족경위. 『신문평론』1964년 4월 호, 76~78쪽;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 편찬위원회(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 한국언론진흥재단, 104~105쪽.

표 3. 연구소 초창기의 주요 조사연구

게재호수	논문제목
1호(1964)	한국 신문인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UN군에 관한 기사와 분석
2호(1965)	한국 엘리트의 신문관
	1963년 대통령 선거전 분석
	신문사설 조사분석
3호(1966)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신문의 태도분석
	농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4호(1968, 7)	텔레비전과 아동
	한국 Mass Media 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방송인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
5호(1968, 11)	한국농촌발전과 매스·커뮤니케이션
6호(1969, 12)	수용자의 사회적 속성과 매스미디어 접촉도

문주간을 앞두고 월간잡지 『신문평론』이 창간되고, 한국신문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신문연구소가 발행한 『신문평론』은 연구 성격의 기고문도 게재했으나, 기본 방향은 실무적인 접근으로서 전문학술지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의 『신문연구소학보』와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가 학술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면, 한국신문연구소는 언론 현장과 연결된 실무적인 언론 연구와 단기 훈련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언론학 관련 전문 학술지가 전혀 발행되지 않았던 1964년 언론 현상에 대한 전문 학술지로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가 창간된 것은 한국 현대 언론학 연구사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초기 연구 논문들은 한국학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듯이,<sup>36</sup> 『신문연구소학보』는 연구 대상을 신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반으로 확대했고, 연구 방법으로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내용 분석 방법이나 조사

연구 등 양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현안 문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들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연구소의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게재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학보』의 대표적인 논문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 2) 신문대학원 설치 이후 연구소의 조사연구

### (1) 독자연구조사센터의 조사연구

초창기 연구소의 조사연구가 주로 연구소 담당교수와 연구생들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아직 연구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던 실정이었다.<sup>37</sup> 이러한 1960년대 초중반의 상황 속에서 1960년대 말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설치되었던 아시아 신문재단의 독자연구조사센터(Readership Research Center)는 안정적인 재정지원하에 조사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 3월 실론(스리랑카)의 캔디에서 IPI(국제신문인협회) 주재 하에 개최된 아시아신문인회의에서 아시아 언론인들의 독자적이고 항구적인 기구로 창설된 아시아신문재단은 그 산하에 5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중의 하나였던 독자연구조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와 협력하여 신문연구소에 독자연구조사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센터는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언론인들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였는데 실행위원장은 김규환 신문연구소장이 맡았다. 이 센터는 아시아 전역에 걸친 신문 보급 현황, 신문 독자의 매스 미디어 접촉에 관한 제 양상, 매스 미디어 간의 상호 관계, 신문의 내용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조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67년 10월 27일 신문연구소는 아시아신문재단의 독

---

36 최중수(1999). 김규환 박사의 언론활동과 학문세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 36쪽.

37 정수경(1977). 앞의 글. 169쪽.

자연구조사센터 설립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sup>38</sup> 기념식에는 서울대학교 최문환 총장과 당시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고재욱 동 센터 위원장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했다. 독자조사연구센터는 실행위원장이었던 김규환 교수가 동양통신이라는 언론 현장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고, 신문연구소와 신문대학원의 연구 인력들은 자료 정리, 조사 연구, 기획홍보를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독자연구조사센터의 조사 연구를 위해 아시아신문재단 기금 65만 달러 가운데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3만 달러를 재단 본부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 내에 예치하여 그 금리로 연구비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했다. 기금 3만 달러는 언론계, 경제인협회, 공보부가 각 1만 달러씩 부담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설치·운영되었던 아시아신문재단의 신문독자연구센터는 <표 4>와 같은 연구 사업을 펼쳤고, 그 결과를 영문으로 아시아 지역의 신문 실태와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The Asian Press*에 수록하였다.

1968년부터 3년간 조사 분석 결과가 수록된 *The Asian Press* 3권의 수록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The Asian Press*의 1968년도 판은 예비조사(Preliminary Survey)로 발행했는데 1968년 시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매스 미디어를 개관했다. 이어 16개 국가와 도시에 대해 지도, 인구, 민족, 사용언어 및 교육 상황을 설명했다. 소개된 국가와 도시는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실론(스리랑카), 중국(타이완),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한국이었다. 이어 각 나라(도시)의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와 텔레비전, 영화 등 주요 미디어 현황을 설명하고, 일간 신문 목록(주소, 발행인, 편집인, 발행 부수, 사용 언어 등 안내)을 첨부하는 형식이었다.

1969년도 판은 아시아 각국의 매스 미디어를 신문, 방송, 영화로

38 “본교 신문연구소에 <독자연구조사센터> 설립”. 『대학신문』. 1967. 10. 30. 1.

표 4. 독자연구조사센터의 연구사업 3개년 계획표

연도	연구 문제	연구 방법	해당 국가
제1차	<미디어> 보급 및 시설, 내용 분석 등	우편 이용	전 국가 (실론(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버마(미얀마), 라오스, 태국, 월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일본, 한국)
	독자 태도, 언어 및 지방 이익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 등	현지 면접 및 관찰	태국, 월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중국, 일본, 한국
제2차	<미디어> 보급 및 시설, 내용 분석 등	우편 이용	전 국가
	독자 태도, 언어 및 지방 이익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 등	현지 면접 및 관찰	실론(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버마(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제3차	미디어 보급 및 시설, 내용 분석 등	우편 이용	전 국가
	독자 태도, 언어 및 지방 이익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과 미디어의 접촉상황 효과 분석	현지 면접 및 관찰	한국, 일본, 중국
	비교 및 경향분석, 최종 보고서		

나누어 지도와 함께 개관했다. 이어 16개 국가와 도시의 지도와 함께 인구, 1인당 국민 소득, 전체 신문 발행 부수, 라디오 수신기 대수, 텔레비전 수상기 대수를 소개하고, 지역별 일간 신문 목록과 발행인, 발행 부수, 사용언어를 정리했다. 일부 국가는 언론 규제 기구,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교육기관, 언론 관련 단체 등을 소개했다. 부록으로 ① 아시아신문재단(Press Foundation of Asia, PFA) 이사장 로스(Joaquin P. Rocés)가 1969년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발표한 연설 전문 ② 아시아신문재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 ③ 아시아 신문 일지(1968년 1월 1일 ~ 1969년 3월 1일) ④ 아시아신문재단 회원 명단 ⑤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신문협회 아시아 회원국 명단을 정리했다.

1970년도 판은 1969년판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의 경우는 매스 미디어의 양적 성장, 언론인 훈련과 교육, 시설의 현대화를 설명하고, 지역별로 신문 목록(주소, 설립연도, 발행인, 편집인, 사용 언어)을 첨부했다. 1970년도 판의 부록은 ① 아시아신문재단에서 후원한 One Asia Assembly 개최식에서 발표했던 우탄트(U. Thant) UN 사무총장의 연설문 전문 ② 아시아신문재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 ③ 아시아신문재단 활동 보고 ④ 아시아 매스 미디어 일지(1969년 6월~1970년 7월) 등이었다.

그러나 아시아신문재단의 부속 기구로 신문연구소에 설치된 독자 연구조사센터는 3년간 활동하고 중단되었다. 재정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의 수행

신문연구소는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김규환·이상희·오갑환 교수 공동 연구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sup>39</sup> 문교부는 1968년도 대학 학술연구조성비로 1억 2,000만 원을 책정하여, 2월 15일 신청한 1,239건을 심사해서 337건에 대해 486명을 선정했다.<sup>40</sup> 이 가운데 개인 연구는 266건에 266명, 공동집단 연구는 52건에 163명, 연구소는 19건에 57명이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신문연구소의 공동연구에 107만 원이 배정되어 서울대학교 지원비 가운데 가장 많았다.<sup>41</sup>

39 김규환·이상희·오갑환(1968). 『한국의 경제성장과 매스·커뮤니케이션』.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이 최종보고서는 세 교수의 소속을 신문대학원으로 기록했다. 1968년 신문대학원 설립 이후 세 교수 모두 신문연구소 소속 교수에서 신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과 선정 단계에서는 신문연구소 소속 교수들의 공동 연구였다.

40 “대학 학술연구비 1억 2천만 원 배정”. 『동아일보』, 1968. 2. 15. 3면.

41 “서울대 학술조성비 2천만 원 확정”. 『동아일보』, 1968. 3. 11. 3면.



이 과제는 내용분석과 사회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 행위 유형과 정부 경제 시책에 대한 주지도와 태도 간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한 것이었다. 내용 분석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의 1967년 1월 1일부터 1968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동안, 정부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했다. 내용 분석은 전 지면에서 경제 관련 기사가 차지하는 양적 비율을 일반 보도 기사와 사설 두 종류의 기사에서 분석했고 1, 2면의 톱기사 가운데 경제 관계 기사에 대한 카테고리별 주제 분석 및 경제 관계 사설에 대한 키 심벌(key symbol) 분석을 실시했다. 사회 조사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가구주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에 관한 주지도와 태도에 대해 질문지를 사용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1968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었다.

이 조사는 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크게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신문과 방송 등이 담당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행위와 간접적인 소집단 내의 구두 전달 행위가 경제 정책에 관한 주지도 및 태도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고찰한 것이다. 이 공동 연구는 체계적인 내용 분석 방법과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반응을 조사한 연구로서 당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사업 추진 과정에 미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 3) 전문연구소의 도약 이후의 사회조사 연구

1970년대 중·후반기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연구소는 문교부, 문화공보부 등 국가기관과 농협중앙회, 『대구매일신문』, 한국방송공사 등 각 기관의 위촉을 받아 16차례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sup>42</sup>

<sup>42</sup>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앞의 책, 597쪽.

이 기간 동안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과제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연구 과제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형 연구 과제의 주제가 전반적으로 대중매체의 수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표 5>의 주요 연구 과제 목록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것이 대형 연구 과제인데, 이 과제들은 한 해에 국한된 조사 연구가 아니었고 개인 연구 차원이었던 다른 연구와도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대형 연구 과제가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1970년대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상황에 대한 사회 조사 연구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들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대형 연구 과제는 1976년과 1978년 두 번에 걸쳐 수행되었던 “조선일보 독자여론조사”와 역시 1978년과 1979년 두 번에 걸쳐 수행되었던 “농민신문 새농민 독자조사”, 그리고 1981년 조사 이후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민생활시간조사”다.

특히 1981년부터 수행했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추진해 온 모든 연구 사업들 가운데 언론정보연구소를

**표 5. 주요 연구 과제(1975~1984)**

연도	책임자	의뢰기관	연구 제목
1975	김규환	공보부	한국 언론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76	차배근	조선일보	조선일보 독자여론조사
1976	김영선	한국광고협의회	광고 문헌 해제
1977	김규환	문교부	청소년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영향에 관한 연구
1978	차배근	조선일보	조선일보 독자여론조사
1978	이상희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새농민 독자 조사
1979	이상희	아산재단	매스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사회적 책임
1979	이상희	농협중앙회	농민신문 새농민 독자 조사
1981	김규환	KBS	국민생활시간조사
1983	추광영	KBS	국민생활시간조사

\*비고 : 음영 부분은 대규모 연구 과제임.

대표하는 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은 처음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학계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 조사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의 통계 조사를 관장하는 통계청이 1999년에야 비로소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착수했다는 점만 보아도 그 시작 시기에서나 역사성에서도 한국 조사 연구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대표적인 연구 조사 사업이었다.

둘째,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조사 연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국의 주요 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연구 목적에 따라 주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조사 표본 수도 대체로 1,000여 개였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많아 봐야 2,000여 개에 불과했다.<sup>43</sup> 따라서 전국 방방곡곡의 100여 개 조사 포인트를 대상으로 3,600개의 표본을 수집했던 1981년 국민생활시간조사는 민간 조사 기관이 수행한 조사 연구로는 최초의 대규모 전국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1980년대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매체 이용 행태를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밝힌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도 그 학술적 가치가 높았다. 1990년 한국에 ‘피플미터’가 도입되어 과학적인 시청률 조사가 이뤄지기 이전이었던 1980년대 본격적인 시청률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청률 조사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사 연구였다.

넷째로 국민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이 ‘자원’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계기를 제공했던 조사 연구였다. 1981년 말 어느 신문기자는 국민생활시간 조사가 “전반적으로 시간관념에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들에게 시간의 중요성과 자원으로서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계기”<sup>44</sup>가 될 것이

---

43 1978년에 한국방송보호협의회에서 시행한 ‘제3회 전국 TV라디오 시청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피조사자 수는 2,000명 정도였다.

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

#### 4) 1980년대 이후의 대형 조사연구

1970년대 말 두 차례에 걸친 『농민신문』 독자 조사, 그리고 1981년과 1983년 두 번에 걸쳐 국민생활시간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수용자 조사 중심의 대규모 조사 연구의 노하우를 축적했던 신문연구소는 1985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조사대상의 범위나 주제의 측면에서 더욱 세분화된 대규모 조사 연구를 매우 활발히 수행했다. 이 시기 대규모 조사 연구 과제에서 발견되는 특징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첫째로, 전 국민의 총체적 시간 이용에 대한 연구였던 국민생활시간조사 연구 기획의 연장선상에서 주요 매체에 관한 시간 이용 연구 및 시청 행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985년의 “텔레비전-라디오 시청 경향에 관한 조사 연구”, 1986년의 “TV·라디오 시청 행태 및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1989년의 “텔레비전 뉴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1990년의 “TV 뉴스의 시청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수용자 의견 조사”, 1991년의 “세계 위성 통신 사업 운영 현황 및 국내 수요 성향 조사분석”, 1992년의 “전화 및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행태와 관련 동기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초창기부터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실질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추광영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시기별 변화를 보면 TV·라디오에 대한 시청 행태 조사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TV뉴스에 대한 시청 행태 조사로 그 조사 범위가 세분화되고, 또 방송 매체로부터 통신 매체로 그 조사대상이 점차 옮겨갔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조사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1985년의 “텔레비전-라디오 시청 경향에 관한 조사 연구”와 1986년의 “TV·라디오 시청 행태

---

44 “기자의 눈: 국민생활시간조사, 시간의 중요성과 자원으로서의 인식 일깨워 주는 계기.” 『동아일보』, 1981. 12. 5. 3면.

표 6. 주요 연구 과제(1985~1995)

연도	책임자	의뢰 기관	연구 제목
1985	이상희	KBS	텔레비전-라디오 시청경향에 관한 조사 연구
	추광영	KBS	1985년 국민생활시간조사
1986	이상희 추광영 박명진	KBS	TV·라디오 시청 행태 및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1987	차배근		정치 지도자상에 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연구
	추광영	KBS	1987년 국민생활시간조사
1988	추광영		정치 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연구
1989	추광영	KBS	텔레비전 뉴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추광영	MBC	국민의 정치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1990	추광영	MBC	TV 뉴스의 시청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수용자 의견 조사
	추광영	KBS	1990년 국민생활시간조사
1991	추광영	KISDI	세계 위성 통신 사업 운영 현황 및 국내 수요 성향 조사 분석
1993~ 1995	강현두	한국통신	신문으로 보는 전기통신 관련보도 기사분석

및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었다. 조사보고서가 각각 1,500여 페이지에 달했던 이들 연구들은 TV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라디오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TV 시대에서의 라디오의 위치 설정 및 사회적 활용 방안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했다.<sup>45</sup>

1989년의 “텔레비전 뉴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와 1990년의 “TV 뉴스의 시청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수용자 의견 조사”는 이전 조사와 달리 TV 뉴스에 초점을 맞춰 텔레비전 뉴

<sup>45</sup> 이상희·추광영·박명진(1986). 『TV·라디오 시청행태 및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6쪽.

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와 함께 그에 대한 반응, 그리고 TV뉴스 개선방안에 대한 수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1980년대 말 한국 방송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었던 ‘전 시대의 착오적 언론 정책이 낳은 방송 보도의 굴절과 왜곡성을 어떻게 빨리 탈피할 것인가’<sup>46</sup>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수행된 것으로서, 1980년대 중반 공영방송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일어났던 시청료 거부운동에 대한 한국 방송계의 자구노력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9년 “텔레비전 뉴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에 대한 당시 언론보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사 연구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주요 언론사가 연구소의 조사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배경에는 1980년대 방송 보도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1년 한국언론연구원이 출범하면서 1984년 ‘우리나라 신문 독자 의식’(제1회 전국 신문 독자 의식 조사), 1986년 ‘한국의 신문 독자’(제2회 언론 매체 접촉양태 및 신뢰도 조사)에서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 조사가 있었고, 선거 이후인 1988년에 ‘선거와 언론’(제3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에서야 비로소 신문과 방송보도의 신뢰도 평가 조사가 이뤄졌지만, 한국언론연구원의 제3회 조사에서 방송 보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단 1페이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개괄적이었다.<sup>47</sup>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89년의 “텔레비전 뉴스 보도물의 시청 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는 한국 최초의 TV보도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년의 “세계 위성통신사업 운영현황 및 국내 수요성향 조사 분석”과 1992년의 “전화 및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행태와 관련 동

<sup>46</sup> 추광영(1989). 『텔레비전 뉴스보도물의 시청행태 및 그 반응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쪽.

<sup>47</sup> 한국언론연구원(1988). 『선거와 언론: 제3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167쪽.

기에 관한 연구”는 한국이 위성 통신 시대 개막을 준비하는 연구 과제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5년 무궁화 위성의 발사를 앞두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위성사업의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문별 잠재적 수요 조사의 필요성에서 수행된 1991년의 “세계 위성통신사업 운영현황 및 국내 수요성향 조사 분석”은 세계 위성통신사업 운영 현황과 함께, 위성통신·방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이용자 집단의 성향을 분석하고 다른 사회경제적 지표와 통신 관련 지표를 연관하여 예상되는 수요 회선수를 조사했다.<sup>48</sup>

이 시기 연구소가 수행했던 대규모 조사 연구 과제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87년 민주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1987년의 “정치 지도자상에 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연구”와 1988년의 “정치 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연구”, 그리고 1989년의 “국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로서 전국 52개 지역 79개 지점으로부터 표집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1987년의 “정치 지도자상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연구”는 1971년 이후 16년 만에 시행되는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TV 매체가 새롭고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① 일반적인 미디어 접촉 행동, ② 선거와 관련된 미디어의 기능, ③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 ④ 이상적인 대통령상, ⑤ 투표 시 대통령의 선택 기준, ⑥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조사했다.<sup>49</sup> 한편 민주화로 가는 정치 상황의 국면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선거 직후인 1988년 2월에 진행되었던 “정치 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연구”는 선거 후 정치 변화와 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데 기

48 추광영(1991). 『세계 위성통신사업 운영현황 및 국내 수요성향 조사 분석』. 서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쪽.

49 차배근·추광영·강현두·강명구(1987). 『정치 지도자상에 관한 국민의 의식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3~8쪽.

여했다.<sup>50</sup>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국 규모의 패널 연구로서 1990년 안광식·최선열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sup>51</sup>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사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 조사 연구는 미디어와 선거 간의 관계에 주목한 한국 최초의 실증적인 전국 규모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전까지의 대형 연구 과제가 주로 조사 연구에 집중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역사 분야에 대한 대형 연구 과제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신문연구소학보』 1호부터 언론사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언론사 분야에 대한 연구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었지만, 1988년 추광영 교수의 개인연구 과제였던 “구한말 한국신문 뉴스의 성격에 관한 연구”와 같이 주로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 연구소 차원의 조직적인 연구 역량 투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에 걸친 장기 연구 과제로 수행된 “신문으로 보는 전기통신 관련 보도 기사분석”은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연구 과제였다.<sup>52</sup>

이 연구 과제는 1883년 10월 31일 발간된 한국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부터 해방 이후 발간된 각종 신문에 나타난 통신 관련 기사들을 한데 모아 날짜순으로 배열하여 분석하는 연구 과제였는데, 그 결과물은 총 10권의 기사모음집으로 발행되었다. 당초 1년 사업으로 기획되었다가 1883년부터 1980년대까지 그 조사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또 수

50 추광영(1988). 『정치 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2쪽.

51 최선열(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50년.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서울: 나남, 761쪽.

52 실제로 1993년 1년차 연구 사업에는 당시 신문연구소 특별연구원이었던 차재영 교수와 주동항 교수를 참여시켰으며, 기사의 검색과 수집, 컴퓨터 입력 및 교정 작업에도 신문학과 학부생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편(1993). 『신문으로 본 한국의 전기통신 1, 1883~1923』.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를 참고하기 바람.



집된 기사들의 문장을 모두 현대식 맞춤법에 따라 현대어로 고쳐 수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사모음집 『신문으로 본 한국의 전기통신』을 1년차인 1993년에 총 3권, 2년차인 1994년에 총 3권, 1995년에 총 4권을 발간했다.

#### 5)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사연구의 분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소는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다. 이 기간 동안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과제들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학과 전임 교수들이 연구소 이름으로 수행했던 개인 연구 과제다. 둘째는 대규모 사회 조사 연구 과제이고, 세 번째는 언론, 방송, 통신 등의 업계로부터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의뢰받은 연구 과제였다.

### 5. 기자 재교육의 전통과 SNU-LG 프레스 펠로십

#### 1) 초창기 신문연구소의 교육 활동, 1963~1968

서울대학교에 신문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사업은 기자 재교육이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기자들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언론 정책의 하나로 포함시킬 정도로 중시했다. 이에 따라 처음 계획은 신문연구소 연구생들의 연구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구 기간을 마치면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교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설립 당시에는 우선 1년 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소로 출발했다. 공보부와 서울대학교 예산만으로 운영했고, 연구생 응모 자격은 매스컴에 관심 있는 대학 졸업자 또는 신문통신기자 및 정부 위탁생으로 연구생은 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sup>53</sup>

신문연구소 연구생 입소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정부·언론 기관의 위탁생이었다. 시험 과목은 논문, 외국어(영, 불, 독, 중국어 중 택일), 선택과목(사회학, 사회심리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중 택일) 등이었다. 정부 위탁생 및 현역 언론인은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수료생은 수료증 및 연구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했다.<sup>54</sup>

1963년 설립 첫 해는 연구생 모집일이 다소 늦어져 4월 22일 제1기 연구생으로 19명을 모집했는데, 현역 언론 기관에서 7명, 정부 공보처 담당부서에서 위탁생 3명 및 일반 연구생 9명이었다. 연구생들은 신문 연구소 개설 강좌 이외에도 서울대 대학원의 모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생들의 등록금은 서울대 대학원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연구 도서 및 연구비는 미국 대사관과 아시아재단 등에서 원조를 받기 위해 교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동안 주 12강좌를 24시간 수강하게 되어 있었고, 수업 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2강좌씩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매일 4시간씩 시행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한 학점도 인정되었다. 수강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놓아 만일 정규 석사 학위과정이 되면 수강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대학신문』의 제2기 연구생 모집 일자가 3월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면 2월에 신청한 연구생 인원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규 대학원 과정이 아닌데다가,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오후에 강의가 진행되는 데 따른 한계가 이때부터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신문』은 1966년 제4기 입소식 관련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sup>55</sup>

---

53 『경향신문』, 1963. 3. 13. 5면.

54 『대학신문』, 1963. 3. 21. 1면.

55 『대학신문』 1966. 3. 21.

연구생 입소식이 오는 26일(토) 연구소 강당에서 거행된다. 4년 전에 발족한 이 연구소는 각 언론기관에서 추천한 위탁생을 포함하여 그동안 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날 식전에는 유기천 서울대 총장, 육지수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언론계 중진이 다수 참석한다.

이 내용은 정규 과정도 아닌 1년 과정의 연구생 입소식에 총장과 언론계 중진이 다수 참석할 정도로 신문연구소의 언론인 교육이 크게 주목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향신문』은 1967년 2월 25일 자 시민가이드의 유일한 학원 뉴스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가 27일 하오 4시 30분 동 연구소 강당에서 제4기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보도할 정도였다.<sup>56</sup>

당시 신문연구소에서 강의를 담당한 강사진은 설립 초기 김규환, 이만갑, 장용, 박권상, 홍승면, 최준, 김증한, 김동성, 김진동 등 9명으로 학계와 언론계의 저명 인사들이었다.<sup>57</sup> 그 후 문홍주, 박일경, 임원택, 황기오, 김정옥, 김원수, 황성모, 이상희, 오갑환, 강현두, 이강수, Duke, 정수경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sup>58</sup> 제1기 연구생이었던 정수경은 1년 기간의 주요 교과목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 여론 선전, 사회조사방법론, 내용 및 효과 분석, 신문론, 비교 신문론, 한국신문사, 신문법제론, 신문영어, 영화론, 방송론, 광고론, PR론, 보도론 등을 기억했다.<sup>59</sup> 당시 교육 내용은 대학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1967년 당시 교과목은 매스컴 원론, 여론과 선전, 매스컴 조사방법, 보도론, 방송론, 신문론, PR론, 한국신문사, 신문 영어, 매스컴 특강, 매스컴 원강독, 비교 신문학, 매스컴 법제론 등이었다.<sup>60</sup>

56 “시민가이드 학원뉴스”. 『경향신문』. 1967. 2. 25. 6면.

57 『대학신문』. 1963. 6. 20. 4면.

58 정수경(1976), 앞의 글, 167쪽.

59 위의 글. 167쪽.

60 『신문평론』. 1967년 12월 호, 149쪽.

우리나라에서 기자 재교육을 목적으로 단기간이지만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1950년대 서울신문학원 시절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신문학원은 기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부 공보실의 지원을 받아 기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1953년 ‘신문기자 아카데미 강좌’를 2회 개최하고, 단기 과정으로 ‘전국지방기자강좌’, ‘학교신문편집강좌’, ‘방송연구강좌’, ‘언론관계 세미나’ 등을 통해 1,000명 이상이 강의에 참여했다.<sup>61</sup> 그러나 정부의 보조가 지속되지 못해 모처럼 마련된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1회성으로 중단되었다. 이렇듯 1950년대는 언론계 공동의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고 각 언론사 단위로 시행한 수습기자 훈련이 있는 정도였다.<sup>62</sup>

따라서 언론인의 직업적·윤리적인 자질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기자 재교육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1950년대 말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1961년 한국신문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신문연구소는 1964년부터 간헐적으로 언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다가 196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언론인 교육을 시작했다.<sup>63</sup> 이런 점에서 볼 때, 1963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가 수행했던 기자 재교육은 한국 최초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자 재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연구소의 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생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저널리즘 교육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교육훈련부장으로 활동한 이만갑 교수는 신문연구소 연구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반응에 대해, “눈에 보

61 한국기자협회(1975). 『기자협회사십년사』. 한국기자협회. 464쪽; 임근수(1977). 한국 신문학의 성립과 발달.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 희관 임근수 박사 화갑 기념논총. 정음사. 15쪽.

62 한국신문연구소(1977). 『77 한국신문연감』.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600쪽.

63 한국신문연구소의 언론인 교육에 대해선, 한국언론진흥재단(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86~215쪽을 참고 바람. 또한 1960년대 중후반의 각 언론단체의 기자 재교육 사업과 대해선, 한국신문협회(1968). 『한국신문연감 1968』. 서울: 한국신문협회. 142~144쪽을 참고바람.

이는 효과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강의가 끝나고 같이 걸어갈 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면 신문학에도 이런 내용이 다 있었나 하는 정도로 놀라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고 그래요. 신문에는 이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종사하는 것일 것이다 하고 생각해 왔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예상하지 않았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알고 놀랐다는 얘기들을 해요”라고 언급했다.<sup>64</sup> 또한 제4기 연구생이었던 원우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김학준 학형(연구소 3기)이 연구소 과정을 이수해 보니 그럴 듯하다고 하면서 연구생으로 입소하여 미국 유학의 준비기간으로 삼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나는 말로 귀땀해 주었다. … 미국 풀브라이트 교환교수인 미시간대학 베이커(Baker) 교수의 미국 언론과 언론사 강의를 수강하여, 미국 대학원 강의 내용을 영어로 청취하고 질문하고 페이퍼를 작성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회고했다.<sup>65</sup> 이런 평가들을 보면 신문연구소의 1년 과정의 교육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신문연구소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현역 언론인들의 참여가 부진했기 때문에 현역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들에게 학문에 관한 눈을 뜨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66</sup>고 평가되었다. 이처럼, 일선 현장에서 바쁜 기자들이 정규 과정이 아닌 교육 과정을 신문사에서 교육 수료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혜택이 없이 1년간 계속해서 수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따라 신문연구소 연구생들은 정규 석사과정으로의 승격을 열망했다고 한다. 뒤에서 살펴보듯 이와 같은 연구소의 1년 과정의 연구생 교육의 문제와 한계로부터 정규 대학원 과정의 신

64 <저널리즘>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제10회 신문연구좌담회. 『신문평론』. 1965. 2. 한국신문연구소, 28쪽.

65 원우현(1999). 동승동 신문연구소 시절의 김규환 박사.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역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 한길사. 386쪽.

66 최종수(1999). 앞의 글. 35쪽.

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되었다.

## 2) 신문대학원의 기자재교육과 신문연구소

이상희 교수에 의하면, 신문연구소는 언론인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위해 1969년부터 1972년까지 4년간 6개월 과정의 특수 강좌를 개설했는데, 간부 언론인 251명이 이를 이수했다고 한다.<sup>67</sup> 실제 언론인 재교육은 신문대학원이 주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신문대학원 전임 교수들은 전부 신문연구소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때 신문대학원이 시행한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이전 시기 신문연구소의 언론인 재교육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 3) 언론인 재교육 기능의 복원, 1975~1984

1975년 신문학과와 설치로 신문연구소의 역할이 재조정됨에 따라, 신문연구소는 이전 시기에 주로 신문대학원이 담당했던 기자 재교육 기능을 인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197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오보 발생의 내외적 요인’라는 주제로 전국 일선 기자 하계 연수회를 개최하여 주로 제작 실무 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지도했다. 이 연수회에 참가한 전국 신문·방송·통신 분야 60여 명의 기자들이 기사의 작성과 보도, 신문 제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보의 근원적 요인과 제작상의 문제점 등을 실무적인 사례 중심으로 규명하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연수회 개막식에는 서울대 윤천주 총장이 참석했고 일본 신문협회 협찬으로 일본 도카이(東海)대학의 스에마츠(末松) 신문학 교수가 내한해 오보에 관한 특강을 했다. 또한 김규환 교수와 이상희 교수(당시 한국신문학회 회

---

<sup>67</sup>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앞의 책, 993쪽.

장) 등이 이 연수회의 지도 교수로 참여했다. 연수회에서 있었던 주제 발표는 다음과 같았다.<sup>68</sup>

- 오보의 원인과 책임(김진홍 서울대 신문연구소)
- 경제 기사에 있어서의 오보(최인수 『매일경제』 취재부 차장)
- 사회 기사에 있어서의 오보(김광일 KBS사회부)
- 옐로 저널리즘과 오보의 문제 - 허스트계와 폴리처계의 사례 연구 (정대수 서울대 신문연구소)
- 외신 기사에 있어서의 오보(박동효 합동통신 외신부)
-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오보(서강화 『조선일보』 교정부장)
- 총괄 토론 (이상희 · 최종수)

특히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1975년 연수회는 기자 재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1970년대 기자협회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4기에 걸쳐 기자 재교육 강좌를 실시했지만 1974년 이후부터 기자 재교육 강좌를 개설하지 못했다. 이 공백을 메우던 신문대학원까지 1975년 초에 해체됨에 따라 한국의 기자 재교육은 완전한 공백 상태였던 상황이었다.

다음 해인 1976년 8월 9일부터 26일까지 연구소는 기자 재교육 특수 강좌를 실시했다. 성곡언론문화재단과 일본 신문협회가 후원한 이 특수 강좌는 21개 강좌 33시간에 걸쳐 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인문·사회과학의 광범위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스컴 관계 이론 5강좌를 비롯하여 경제 자원 문제 5개, 정치 외교 5개, 사회와 기타 6개 강좌였다.<sup>69</sup>

68 한국기자협회(1994). 『기자협회 30년사』. 서울: 한국기자협회. 476쪽.

69 정진석(1999).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산학협동.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 (1999).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 서울: 한길사; 서울대 신문연구소 기자 재교육 실시. 『기자협회보』 1976. 8. 1; 이효성. 언론인 재교육의

한편, 1977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변인·언론인 합동 세미나를 언론인과 정부 각 부처 대변인, 각 언론기관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개최식에서 윤천주 서울대 총장은 개최사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깊이하고 뒤떨어진 것을 만회하는 광장으로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고, 김규환 신문연구소 소장은 과거 정부와 신문의 대립 관계로부터 상호 협력 관계로 그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sup>70</sup>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강연 참가자는 다음과 같았다.<sup>71</sup>

• 강연

- 1990년대의 한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이상희 서울대 교수)
- 한국 언론의 현황과 문제(최종수 『한국일보』 논설위원)
- 홍보 효과와 사회 조사(오인환 연세대 교수)
- 국가 안보와 홍보 정책

• 주제 발표

- 정부의 홍보 정책 방향과 과제 (정대수 『국제신보』 정치부)
- 정부 홍보의 현실과 문제점 (최병열 『조선일보』 정치부장)
- 새마을운동 홍보의 실제(이두연 경상남도 공보실장)
- 전문 직업을 향한 언론인 재교육(이기창 동양통신 사회부장)
- 홍보와 보도 간의 조정(장영근 재무부 대변인)

• 참가자: 정태환(내무부 대변인), 신찬(국방부 대변인), 노수정(법무부 대변인)

---

이상과 과제. 『기자협회보』, 1976. 10. 1.

70 “언론인, 공보관 합동 세미나, 서울대 新聞硏”. 『매일경제』, 1977. 5. 16.

71 언론인, 공보관 세미나, 서울대 신문연구소 주최. 『기자협회보』, 1977. 6. 1.



또한 1977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산정호수 호텔에서 외신부장 세미나 ‘국제 보도의 제문제’를 개최했는데, 전국 언론계 외신부장급 40여 명이 참가했다. 『동아일보』 권오기 편집국장과 『한국일보』 조세형 논설위원이 연사로 나와 ‘미국에서 본 한국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국제 보도’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일본 도쿄대 쓰지무라 아키라 교수가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일본언론의 특성과 공산권의 여론 및 선전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sup>72</sup> 또한 1977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도 ‘일본의 매스 미디어 현황’<sup>73</sup>이라는 주제로 기자 재교육 특수강좌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렇게 신문대학원 폐지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신문연구소가 현업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연구소의 기자 재교육 기능은 축소되었다. 반면 1980년대에 들어선 기자 재교육의 대상을 주류 언론인이 아닌 대학 신문 주간과 학생기자로 변화시켜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전 시기부터 계속된 기자 재교육의 전통을 이어 나갔다. 1984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연구소는 ‘대학 신문 주간 및 학생기자 워크숍’을 설악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아시아신문재단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것으로서, 전국 주요 대학의 현직 대학 신문 주간 및 20명의 학생 기자가 참여했고 주요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평원순 교수가 ‘대학 신문의 역사’, 방정배 교수가 ‘외국의 대학 신문’, 최정호 교수가 ‘신문 편집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방안’, 김해성 교수가 ‘신문 문체의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sup>74</sup>

72 외신부장 세미나, 서울대 신문연, 국제보도 문제. 『기협회보』. 1977. 9. 1; “서울대 신문연구소, 외신부장 세미나”. 『동아일보』. 1977. 8. 19.

73 “서울대 신문연구소 주최 기자 재교육 특수 강좌”. 『동아일보』. 1977. 8. 22.

74 “대학신문 主幹, 학생 워크숍, 27, 28일 ‘신문문체분석’ 등 토론”. 『동아일보』. 1984. 6. 22.

#### 4)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 PR 및 해외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

##### : SNU-LG 프레스 펠로십의 개최(1997~현재)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SNU-LG Press Fellowship Program)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언론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하여 LG상남언론재단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하는 외국 언론인들의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의 하버드 니만 펠로십(Harvard Nieman Fellowship)이나 영국의 로이터 펠로십(Reuter Fellowship)과 유사한 국제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는 1995년에 개최된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95 Seoul Fellowship Program)을 모태로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창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는 선진국 중심의 방송 질서를 기축으로 한 기존 국제 커뮤니케이션 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편을 요구한 제3세계 국가들의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국제정보질서운동(NWICO)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제1회 프로그램 이후 지금까지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추광영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추광영 교수는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문제의식으로부터 1984년 KBS에 국제방송심포지엄(IBS) 개최를 권고했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1985년에 신설된 국제방송인협회(IBS, International Broadcasting Society)가 제3세계 방송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제방송인연수는 1997년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1995년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은 IBS를 계기로 한 KBS의 개발도상국 방송인 연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추광영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해외 언론인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언론재단의 모 이사가 해외 언론인 연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추광영 교수에게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 개최를 제안했다.<sup>75</sup>

이후 1995년 12월 LG상남언론재단의 이사가 되었던 추광영 교수의 제안으로 이 프로그램은 LG상남언론재단과 공동 주관해 1997년부터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정례화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12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이자 해외 PR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과정에는 국내외 유명학자 및 각계 인사들의 특강 및 세미나, 주요 언론사 및 산업시설의 견학, 문화 유적지의 답사, 그리고 자유 취재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95 서울 펠로십도 비슷한 프로그램이었다.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12개국(네팔,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의 참가로 1995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3주까지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강의로,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산업체 및 방송사, 국회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sup>76</sup> 프로그램 과정의 기본 틀은 1997년 이후의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은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된 면모를 보였다. 첫째, 참가자의 자국 내 일정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간을 5주에서 4주로 줄였고, 둘째, 기자들이 연수해야 할 강의과목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했으며, 셋째, 산업 시찰의 대상이 국내 주요 대기업로부터 LG그룹의 주력 산업체로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넷째, 초청 대상국을 기존의 12개국에서 10개국으로 줄였지만 대상 지역에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한국과 관련된 강의를 대폭 보강함으로써 해외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꾀하는 한편, LG그룹의 주력 산업체로 초점을 맞추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경시

---

75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2013). 앞의 책, 246~250쪽 추광영 교수와의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76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5). 『'95 서울 펠로십 프로그램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김으로써 해외 홍보 효과를 실효성 있게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2008년부터는 밀도 있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참가국을 10개국에서 8개국으로, 기간은 4주에서 3주로 단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기조는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SNU-LG 프레스 펠로십 프로그램은 몇 가지 점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50년 역사에서도 손꼽을 만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연구소의 활동 영역을 기존의 학술 영역에서 탈피하여 사회봉사 영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연구소들이 연구적 측면에서의 산학협력 위주로 활동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연구소의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연구소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학술기금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매년 프로그램을 주관했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LG상남언론재단에서 제공한 기여금은 연구소 학술활동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의 국내 언론인 재교육 기능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학에 설치된 언론학 관련 연구소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구소라는 명성에 걸맞는 오래된 역사성을 보여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6. 연구소 학술교류 50년

### 1) 국제 학술교류의 시작

1967년 연구소 산하에 아시아신문재단의 독자연구조사센터를 설립하면서 아시아 각 국가 연구기관과의 교류망이 만들어진 이후, 1980년대 들어 연구소의 모델이기도 했던 일본 도쿄대학교 신문연구소와의 학술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일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학술 교류가 특히 많이 이뤄진 것은 1970년대 말 한일 간의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과 연구소 2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및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가장 밀착해 오던 한일관계가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냉각된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양국 간의 국교 단절이라는 극한 상태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구소는 1980년 또 다시 난기류에 빠진 한일관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국제 세미나를 한일커뮤니케이션 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1980년 12월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일 커뮤니케이션 갭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이 국제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규환 교수와 연세대 학교 오인환 교수는 ‘한국인의 일본인관’이라는 주제로 1978년 6월 1,079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도쿄대학교 츠지무라 아키라(辻村明) 교수는 ‘일본인들의 한국인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리고 송두빈(宋斗彬)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은 ‘일본 매스미디어에 비친 한국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1980년 ‘한일 커뮤니케이션 갭 심포지엄’ 이후 1981년에는 일본신문 협회 신문연구재단 고마쓰바라 히사오(小松原久夫) 씨를 초청하여 ‘동남아 제국 언론의 현황과 진로’라는 주제하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sup>77</sup>

한편 1983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장 오래된 언론학 연구기관이었던 만큼, 이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커뮤니케이션학이 도입된 이래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 재조명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

77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편(1996). 『서울대학교 50년사(하)』, 435쪽.

## 2) 학술교류의 활성화, 1985~1994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소가 대규모 사회 조사 연구 과제를 많이 수행하면서 1990년대 전후로 하여 연구소 자체 연구기금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추광영 교수가 소장으로 취임한 1989년 이후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던 자체 기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충됨으로써 국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 또는 지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급격한 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199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 전 세계 방송은 새로운 방송형태로서 위성 방송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었다. 특히 동북아 국가 중 일본이 위성 방송 등과 같은 뉴미디어 기술 개발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다. 이전 시기 신문연구소가 언론학의 자기 정체성 모색이라는 측면이나 특정 시기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왔었던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서도 신문연구소는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했다.

1992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신문연구소가 MBC와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송질서와 대책’ 국제 학술 세미나는 1980년대 말 방송의 뉴미디어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정책적 이슈를 제공하는 국제 세미나였다. 신문연구소 설립 30주년<sup>78</sup>을 기념하는 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도 했던 이 국제 세미나는 특히, 일각의 평가처럼 NHK와 홍콩 스타TV의 위성 방송을 시청하는 국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전파의 ‘월경(spill-over)’ 현상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개최되어 큰 의의가 있었다.<sup>79</sup> 3일간에 걸쳐 국내 대표적인 언론학자를 위시하여 세계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협회 하멜링크(Cees J. Hamelink) 회장 등 13개국에서

<sup>78</sup> 신문연구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는 1993년이지만, 당시 이 행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연구소와 문화방송의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했다고 보도되었다.

<sup>79</sup> “선진국 ‘전파침략’ 심각하다”. 『경향신문』, 1992. 4. 15.

많은 학자들이 참가한 이 세미나는 ‘신국제질서와 방송정책’, ‘방송에 있어서 지역적 협력과 갈등’,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사회발전’, ‘통일과 전망’이라는 5개 주제하에 총 2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은 별도의 단행본 보고서로 편찬되기도 했는데, 국문과 영문판으로 각각 엮어진 이 보고서는 세계 매스컴 관련 석학들의 원고를 국내에서 직접 발표하는 최초의 저술이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국내외 학계 및 방송계의 관심을 끌었다.<sup>80</sup> 이 국제 세미나를 기획했던 강현두 교수는 1992년의 단행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다시 1994년에 나남출판사를 통해 영문판 보고서를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North-East Asia*를 정식 출간했다.

또한 이듬해인 1993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신문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얻어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국제회의실에서 ‘韓·中·日 國際言論學術會議’를 개최했다. 중국의 인민대학, 사회과학원 신문연구소, 일본의 릿교(立教)대학교 및 도쿄대학교 사회정보연구소에서 온 발표자가 ‘언론학 교육 및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새로운 동양적 언론학 패러다임의 모색’, ‘동북아의 평화와 한중일 언론 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방안 모색’을 주제로 9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81</sup> 이 국제 학술 세미나는 그동안 주로 일본 연구기관에 집중되었던 국제 학술 교류를 중국까지 확대시켜 이후 중국과의 학술 교류가 꾸준히 이뤄지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으며, 이후 1996년 이후 도쿄대학교 사회정보연구소와의 정례적 교류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국내 학술 세미나와 학술 포럼의 개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1990년 이후 신문연구소가 국내 학술 세미나

80 “‘동북아 방송질서 변화’ 보고서 나와, 13개국 21명 논문수록”. 『한겨레신문』, 1992. 12. 26.

81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1993). 『韓·中·日 國際言論學術會議』. 서울: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및 학술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했던 주된 이유는 언론기본법(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에 근거하여 1981년 6월 한국신문연구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새로운 사단법인체인 한국언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고, 한국언론연구원이 기자 재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이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자 재교육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신문연구소는 이전 시기 주된 기능 중의 하나였던 기자 재교육을 위한 단기 세미나를 대신하여 주로 국내 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연구소의 국내 학술 세미나는 과거 도심의 유명 호텔 회의장을 탈피하여 학술 연구자들이 모이기 용이한 서울대학교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연구소의 국내 세미나는 대체로 1984년 무렵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1984년과 1985년의 국내 세미나를 정리한 것이다.<sup>82</sup>

- 1984년 4월 ‘민족 신문의 민족의식과 계급의식’ (발표자: 방정배)
- 1984년 5월 ‘지식을 위한 논쟁’ (발표자: 김학수)
- 1984년 11월 ‘Marxism과 communication 연구’ (발표자: 이정춘)
- 1985년 4월 ‘일본 신문과 뉴미디어’ (발표자: 스기노 아노미치)
- 1985년 6월 ‘New Technology와 종속 이론’ (발표자: Jeremy Tunstall)
- 1985년 9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atellite’(발표자: Aldo A. Cocca)

1980년대 중반 일련의 국내 세미나 중 1985년 4월 27일 ‘일본 신문과 뉴미디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일본경제

---

<sup>82</sup>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1986). 앞의 책, 597쪽.



신문 상무이사 스기노 아노미치(杉野直道)는 최근 뉴미디어가 속속 출현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뉴미디어가 신문의 사양화를 재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의 신문 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했다.<sup>83</sup>

신문연구소는 또한 1991년 2월 23일 1979년에 작고한 고(故) 임근수 교수를 추모하는 발표회를 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신문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했던 선생의 학문적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1992년 무렵에는 기존 기자 재교육 특수 강좌나 저널리즘 위주의 주제에서 탈피해 일련의 대중문화 관련 학술 세미나가 개최됨으로써, 학술 세미나에서 다루지는 주제 범위가 좀 더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 6월 25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회의실에서는 ‘대중문화에 관한 특별 강좌 및 매체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1992년 7월 20일에는 대중문화 특별 강좌 제2회로 ‘포스트마르크시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대중문화’를 개최했는데, 미국 대중문화 관련 저명학자로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Austin) 교수였던 더글라스 켈러(Douglas Kellner)가 강연을 맡았다.<sup>84</sup> 이러한 일련의 대중문화 관련 학술 포럼은 1990년대 초반기 한국 사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학계의 학문적 관심을 반영했던 적절한 기획이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1993년 5월 4일에는 ‘한국 기자 집단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sup>85</sup> 이 세미나는 과거 기자 재교육 차원에서 교양 위주의 인문·사회과학적 내용을 다루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또 초창기 저널리즘 연구의 현장 수요 지향성이나 1970, 80년대의 메시지 내용 분

---

83 “뉴미디어, 신문에 도움, 서울대신문 세미나”. 『매일경제』. 1985. 4. 29.

84 “매체비평 방법론 토론회”. 『한겨레신문』 1992. 6. 19; “서울대 신문연 특강”. 『동아일보』. 1992. 7. 20.

85 “사람, 사람, 사람들”. 『동아일보』. 1993. 5. 5.

석 위주의 경험주의적 저널리즘 연구에서도 일정 정도 탈피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이나 문제의식에서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1990년대 이후 저널리즘 연구 경향<sup>86</sup>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5월 12일에는 한국방송개발원의 후원으로 ‘현대 중국방송의 이해’라는 주제로 해외 학자 초청 학술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중국 베이징방송대학원 원장과 베이징방송대학교 언론연구소 소장인 루카오(Lu Cao) 교수가 강연을 했다.<sup>87</sup> 1991년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당시 한국의 학계에서도 사회주의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다.<sup>88</sup> 그리고 1990년대 초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인해 매스 커뮤니케이션 산업, 특히 방송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초청세미나는 1993년 ‘韓·中·日 國際 言論學術會議’나 연구소학보 29권(1992년)의 특집주제였던 ‘최근 해외의 매스컴 동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기획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 급격한 통신 기술 발달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통신 문화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학술적 탐색을 위하여, 신문연구소는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1994년 11월 1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전화 이용 문화에 관한 세미나’라는 주제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백제 한국통신 사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 혁명과 한국 선진화의 길’(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 ‘정보통신 시대의 도시 생활환경’(권태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화 이용 실태와 한국인의 의식 구조’(추

---

86 저널리즘 연구의 경향변화에 대해선, 임영호(2009). 저널리즘 연구 50년의 성찰. 한국언론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편(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서울: 나남. 참조.

87 “현대 중국방송의 이해”. 『한겨레신문』. 1994. 5. 12.

88 Lu Cao (1992). 중국의 개방정책을 통한 개혁과 방송환경. 『신문연구소학보』, 29호, 103쪽.

광영,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한국에서 말의 문화와 정보통신’(최정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는 전화 이용 문화에 관한 한국 최초의 논의였다는 점에서,<sup>89</sup> 그리고 일회성의 기획 세미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연구소가 한국통신의 의뢰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 연구 사업으로 수행해 오던 대규모 조사 연구 과제인 ‘신문으로 보는 전기통신 관련 보도 기사분석’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세미나였다고 평가된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신문으로 보는 전기통신 관련 보도 기사분석’ 연구 과제는 한국에 전기통신이 도입되었던 1883년부터 1981년까지 약 100년간의 신문 기사를 집대성하여 10권의 책으로 출판했다는 점에서, 연구소의 출판물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 3) 학술교류 활동의 일상화, 1995~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1980년대 후반까지는 학술교류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재원이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1980년대 언론계 및 언론학계의 제도화에 따른 역할 재정립을 위한 모색의 시기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기에 들어 연구소의 학술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계기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1989년 이후 연구소 자체기금의 대폭 확충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언론정보학과에 새로 전임교수로 부임한 강명구, 박승관 교수 등이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학술 활동의 기운이 수혈되고, 박명진 교수가 1995년 2월 말부터 처음으로 연구소장직을 맡게 된 것도 연구소의 학술 활동에 새로운 학문적 기운을 불려 일으켰던 요인이었다.

따라서 일각의 평가대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하

89 강현두(1994). 편집자 서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편(1994). 『새로운 전하이용문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통신. 2쪽.

던 1990년대 말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현실 사회가 산업화와 정보화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의 급속한 변화를 문화론적으로 해명하는 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하나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1996년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조형제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정보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현실의 문화적 의미를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의 관점에서 질적 접근을 통해 규명하려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sup>90</sup>

#### (1) 국제 학술 세미나

박명진 교수의 연구소장 재임시절인 1995년 11월 21일, 연구소는 문화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메디올로지, 권력, 언론’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국제 세미나는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메디올로지(mediology)의 관점에서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메디올로지를 정립한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레지 드브레이(Regis Debray), 그레노블 3대학의 다니엘 부뉴(Daniel Bounoux) 외 4명이 발표를 하고, 서울대학교 차배근, 한상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세미나의 기초발제를 했던 레지 드브레이는 “메디올로지의 영역: 정치사에서 기술사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메디올로지적 연구 태도와 메디올로지의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 메디올로지적 접근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기술주의적 개념화가 배제한 권력 관계와 같은 정치적 차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전달(transmission)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다니엘 부뉴 교수는 “매스미디어 문제에 선결되어야 할 질문: 정보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에 제기하는 문제”라는 발표에서, 정보 전달(information)과 커뮤니케이션

---

90 “산업화와 정보화 ‘동시수행’ 해명”. 『조선일보』, 1996. 4. 17.

(communication)의 두 개념이 매스 미디어의 영역에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서로 다른 문화, 논리, 직업에 관계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정보라는 가치의 특성, 쾌락 원칙과 관계의 우위, 저널리스트의 힘겨운 작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sup>91</sup>

한편, 1996년부터 일본 도쿄대학교 사회정보연구소(구 신문연구소, 현 정보학환)와의 정례적인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한일 간 학술 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한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하여 2010년대 동아시아·환태평양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매년 공동 심포지엄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하여 언론정보 연구소는 1997년 제2회 한일 공동 심포지엄으로 ‘한·일 양국의 사회정보화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의 마스다 유지(増田祐司)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정보 문화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미스코시 신(水越伸) 교수는 “가상공간과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한국의 박승관 교수는 “한국의 정보화와 정치사회적 맥락”이라는 주제로, 추광영 교수는 “한국의 지역 정보화 현황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4회 정례 국제 학술 세미나는 1999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1세기를 위한 언론학: 한국과 일본에서의 그 대응과 준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이의 활용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동인이 되고 특히 신문, 방송, 영화 이외 기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기능적으로 융합시키는 이른바 멀티미디어 언론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언론학이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sup>92</sup>

91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편(1995). 『매디올로지, 권력, 언론』. 서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92 강현두(1999). 21세기를 위한 언론학: 한국에서의 그 대응과 준비. 『언론정보연구』, 36호.

주로 교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도쿄대 사회정보연구소와의 정례적 학술 교류는 해를 지나면서 점차 대학원생들 간의 교류로 이어지기도 했다. 도요타재단의 기금을 재원으로 발족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월경적인 네트워크의 형성-과거와 현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던 일본 도쿄대 사회정보연구소의 강상중 교수의 제안으로, 당시 언론정보연구소장이었던 강명구 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워크숍을 2001년 4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한국에서 개최했다. 이와 같은 워크숍의 개최를 기획한 것은 프로젝트의 실리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문·사회계의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연구 테마를 한일 간 서로 맞부딪쳐 보는 가운데 상호의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하고, 각각 안고 있는 실천적·비판적 과제의 이해를 넓혀 가기 위해서였다.<sup>93</sup> 이에 따라, 강상중 교수와 강명구 교수,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의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Suzuki)가 발제에 참여하고 양국 석·박사 과정 학생 13명의 발표가 있었다.

제6회 한일 공동 심포지엄은 2002년 3월 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동백룸에서 ‘한일 미디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데유키(田中秀幸) 교수는 “정보 네트워크 기의 사회경제 시스템”, 요시미 순야(吉見俊哉) 교수는 “일본에서의 미디어 지(知)의 계보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언론정보연구소 측에서는 윤석민 교수가 “1990년대 한국의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양승목 교수가 “한국의 언론사 세무 조사와 언론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sup>94</sup>

---

9~10쪽.

<sup>93</sup> 강상중(2001). 글로벌화 속의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동아시아의 월경적(越境的)인 역사와 공간을 생각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편(2001). 『동아시아의 월경적(越境的)인 역사와 공간』. 서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1쪽.

<sup>94</sup>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편(2002). 『한일 미디어 연구의 새로운 방향』. 서울: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2004년 제 8회 한일 공동 심포지엄은 11월 4일부터 5일까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문화, 정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8회부터는 대학원 합동 세미나도 교수 세미나와 함께 개최했다. 교수 합동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쟁점’으로 이준웅 교수가 “숙의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실험”, 강남준 교수가 “모바일폰을 사용한 선거 조사 방법에서의 패널 효과”, 윤석민 교수가 “방송통신 융합의 사회적 맥락”을 발표했고, 제2주제 ‘디지털 미디어와 저널리즘’에서는 일본의 하나다 타츠로(花田達郎) 교수가 “정보화 시대의 매스 미디어와 저널리즘: 정치경제학과 전문주의의 관점에서”, 강명구 교수가 “표출적 공론장과 참여 미디어”, 이창호 교수가 “정보사회의 언론: 온라인 저널리즘의 성장”을 발표했다. 제3주제 ‘가상세계와 삶의 의미’에서는 하야시 가오리(林香里) 교수와 김삼미 교수의 공동 연구로 “일본여성 사이의 겨울연가 봄: 감정생활로부터 생겨나는 ‘정치’생활의 다이내미즘”을, 이종식 교수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가상성”을 발표했다. 그 밖에 대학원생 합동 세미나에서는 한일 양국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20명이 논문을 발표했다.

## (2) 국내 학술 세미나

1995년 이후 학문적 국제 교류의 모색으로 인해 국제 학술 세미나가 비교적 활발히 개최했던 데에 비해 국내 학술 세미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개최되었던 국내 학술 세미나의 내용이다.

- 1996. 10. 23. ‘현황과 쟁점: 21세기 언론학과 언론학 교육의 향방’
  - 『언론정보연구』 33호 특집호 게재
- 1997. 4. 30. 언론사 기자 채용 방식의 현황과 문제
  - 발표자: 김종배(전 한겨레신문 사장), 차배근 교수

- 1997. 11. 4. 국내 위성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
- 1998. 3. 5.~3. 7. 외신 보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장소: 제주신라호텔, 공동주최: 삼성언론재단
- 2001. 11. 29. 아시아 문화 연구 (Inter-Asia Cultural Studies) 학술 심포지엄: 아시아 문화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및 연세대 문화학과, 영상원 등 서울소재 6개 기관 협동 학술심포지엄
  - 발표자: 조한혜정 외 3명
- 2002. 8. 30. 21세기 한국 사회의 매체 이용 환경과 디지털 위성방송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 발표자: 김자경 박사, 김은미 교수, 윤석민 교수
- 2002. 10. 2.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통일적 연구 프로그램의 모색
  - 발표자: 이준웅 교수, 이진혁 교수, 박선희 교수
- 2004. 5. 7.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한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 발표자: 이준웅 교수, 이진혁 교수, 민영 교수

위 국내 학술 세미나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국내 학술 세미나는 많지 않은 세미나 개최 횟수에 비해 주제적 다양성을 보였다는 특징이 있다. 언론학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모색에서부터 저널리즘 영역, 문화 연구 영역, 정치 커뮤니케이션 영역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언론정보연구소의 학술 활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전 시기 간헐적으로 개최되던 작은 규모의 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 학술 포럼을 자주 개최했다고 하는 점이다. 1990년대 하반기에는 연 1회 정도로 개최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경우 한 해 5~6회 정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연구소가 작은 규모의 학술 포럼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언론정보연구소는 국내외 학자들 간의 학술 교류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학문적 조류의 지식을 접



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2000년대 초반기의 잦은 학술 포럼의 개최는 2005년부터 학술 포럼의 정례화에 토대를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7. 맺음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적 의미

지금까지 1963년 3월 1일 신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에 설립 되어, 1994년 3월 1일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고, 2013년 3월 1일로 설립 50주년이 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에서 언론학 연구와 교육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50년대까지 언론학 연구와 교육은 주로 저널리즘 실무를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1950년대 중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 기존의 '신문원론' 과목 이외에 '매스컴이론'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과목은 미국에서 194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가르친 것으로, 저널리즘 실무과목이 아닌 사회과학화된 언론학이었다.

1963년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과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는 설립 초기 활동으로 볼 때, 이 두 경향을 절충 또는 병행했다고 할 수 있었다. 설립과 함께 시작한 1년 기간의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한국 최초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언론인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사회에 언론인 재교육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문연구소의 5년간의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은 1968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설립으로 발전했다. 연구소는 언론인 재교육과 함께 한국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내용 분석과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신문대학원 설립 이후 신문연구소는 연구소 본래의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연구소는 점차 사회과학적인 연구 활동이 중심 활동이 되었다.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회과학대학 안에 신문학과 학부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했다. 이 시기 이후 언론정보연구소는 사회과학적 연구 학술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자체 학술지 『언론정보연구』를 설립 이듬해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언론정보연구』는 오늘날까지 한국 언론학의 대표적인 전문 학술지의 하나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된다. 연구소가 1964년 창간한 『신문연구소학보』는 당시 언론학계 유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보가 발행될 때마다 게재 논문 내용이 언론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한국신문학회의 학술지 『신문학보』가 1960년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한동안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69년에야 제2호를 발행했기 때문이었다. 『신문연구소학보』는 1994년 『언론정보연구』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언론학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로는 처음으로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 등재지로 상향되어 2013년 2월 28일 제50권 1호를 발행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정보연구소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미국과의 국제 학술 교류를 시작했고, 그 후 교류를 확대하여 현재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학술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이해하면서 한국 언론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한국 언론정보학의 과제와 좌표 설정에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언론정보연구소는 1981년부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조사 사업인 국민생활시간조사 사업을 비롯해 각 시기마다 관련 기관과 미디어 기업의 용역 과제로 수행한 많은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 한

국 미디어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언론정보학 포럼’을 정례화하여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미디어 기업 실무책임자의 현장 의견,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정책적 입장 등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의 안목 형성과 동향 이해를 돕고 있다고 평가된다.

언론정보연구소는 설립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으며 학술 활동을 전개했고, 그러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도 신진교수들이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연구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자체 연구소 평가에서 2007년 우수 연구소에 선정되었고, 2009년과 2012년에는 연속으로 최우수 연구소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는 연구 활동,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 교류 활동 및 교육 기능 등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한국 언론정보학 연구를 선도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현두 (1994). 한국언론학사 재고 『언론정보연구』, 31 권, 1~17.
- 김규환 (1969). 커뮤니케이션 과학연구의 현황과 방향-〈학보〉속간에 즈음하여. 『신문학보』, 2호, 5~11.
- 김규환 (1973).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서울: 민중서관.
- 김규환 (1977). 서문. 김규환 편. 『한국커뮤니케이션 연구』(1~9쪽). 서울: 민중서관.
- 김영희 (2009). 『한국 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1호, 132~155.
- 박유봉 (1977). 신문학과 의 창설과 발전.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 (205~222쪽). 희관입근수박사회갑기념논총. 서울: 정음사.
- 서울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편 (1976). 『서울대학교 30년사: 1946-1976』.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1999). 언론정보연구소 연혁·현황 실적: 1963~1999. 『언론정보연구』, 36권 1호, 234~252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5). 『연구소 평가 자체평가서』.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7). 『연구소 평가 자체평가서』.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9). 『연구소 평가 자체평가서』.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2). 『연구소 평가 자체평가서』.
- 서울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1946-1996 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연구처 (1996).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50년(1)-총괄·인문·사회과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승목 (2005).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南汀 金圭煥 小考. 『커뮤니케이션 이론』, 창간호, 1~34.

- 원우현 (1999). 동승동 신문연구소시절의 김규환 박사.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383~390쪽). 파주: 한길사.
- 이수정 (1964). 不備속의 의욕-신문연구기관 탐방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편. 『신문연구』, 7호, 89~90.
- 임근수 (1973). 한국신문학사 서설. 『신문학보』, 6호, 8~21.
-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 정수경 (1977). 신문학 연구기관과 그 업적.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 (161~177쪽). 희관임근수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정음사.
- 정진석 (1999).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산학협동.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 엮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61~93쪽). 파주: 한길사.
- 차배근 (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 교육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 『신문연구 소학보』, 24권, 51~101.
- 차배근 (1989).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언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 주제 논문집. 『언론학 교육의 성찰』(3~62쪽). 한국언론학회.
- 최중수 (1977). 비정규교육의 어제와 오늘-기자 재교육을 중심으로.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50년사』(223~236쪽). 희관임근수박사화갑기념논총. 서울: 정음사.
- 최중수 (1999). 김규환 박사의 언론활동과 학문세계.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동창회엮음.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교차로에서 남정 김규환 박사의 학문과 실천』(23~60쪽). 파주: 한길사.
- 한국신문협회 (1968). 『한국신문연감 1968년판』.
- 한국신문연구소·한국신문회관 (1977). 『한국신문연감 1977년판』.
- 한국언론진흥재단50년사편찬위원회 (2012).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학회50년사편찬위원회 편 (2009). 『한국언론학회 50년사 1959~2009』. 한국언론학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proxy-net.snu.ac.kr/ac7d73d/\\_Lib\\_Proxy\\_Url/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proxy-net.snu.ac.kr/ac7d73d/_Lib_Proxy_Url/srchdb1.chosun.com/pdf/i_archive/)

『경향신문』

『대학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연구소학보』

『언론정보연구』

최초 투고일: 2013.06.28

논문 수정일: 2013.08.05

게재 확정일: 2013.08.08